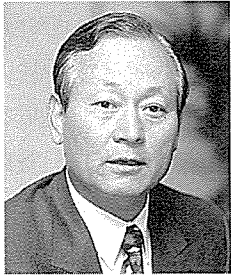


21세기 향한 산업기술혁신 이뤄야



趙成洛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우리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기업의 주력 제품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에서 90%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핵심기술은 도입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의 대부분이 선진국의 성숙기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연구효율은 일본의 60~7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D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투자·인력 등 양적 지표는 세계10위권, 기술관리 등 질적 지표는 약 30위권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연구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천한 연구개발역사,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비전의 부재, 창조성 발휘를 저해하는 관료적 연구문화, 일관성이 부족한 과학기술정책과 부처간 협조부족,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하는 기업경영구조, 일부 연구원들의 그릇된 연구행태 등이 대다수 연구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력시장을 잠식당하고 수출부진과 수입증가로 국제수지 적자가 1천억 달러가 넘는 등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들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엔고라는 외생변수에서 비롯된 것일 뿐 자체 경쟁력강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Peter Drucker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폐기」라고 한바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의 사고방식과 관행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신속히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폐기하여 세계 최하위 수준인 정부경쟁력을 선진화하

지 않고서는 산업공동화 현상과 도산하고 사라져가는 기업들을 회생시킬 없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유일한 활로인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산업기술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업가나 연구원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기업인들이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넷째, 기업은 기술개발을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고 기술개발의 효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80년대에는「제조업의 몰락」을 탄식했으나 90년대 들어와 이른바 Business Renaissance로 불리우는 세기적 변화를 맞고 있다. 무엇이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힘을 불어 넣었는가? 주된 추진력은 생산성 향상의 70~80%를 차지하는 기술진보와 신기술에 있었다. 제조업분야에서 수많은 기술적 돌파가 있었다. 첨단소재, 마이크로프로세서, 광섬유 통신, 의료기구, 의약, 우주탐사, 하드웨어 등 모든 제조업에서 광범위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비제조업보다 6배나 크다고 한다. McKinsey사에 따르면 일본 종업원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종업원의 83%에 머물고 독일 종업원의 노동생산성은 73%정도 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사례는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속에 놓여 있다. 필요한 것은 훌륭한 선장과 선원들의 일치단결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선원들의 능력이다. 기술개발에서 이들 삼박자를 갖추어 우리는 재편되고 있는 세기말적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과 보람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㉓